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문화재위원회 합동위원회 (순재·부형)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6. 23.(금) 15:00~17:17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이순, 김문수, 신안준,
안창모, 이광표, 박영규, 정복상, 서도식,
전용일, 이호열(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록

【검토사항】

1	통영 소반장 공방 문화재 등록 검토
---	---------------------

검 토 사 항

1. 「통영 소반장 공방」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통영 소반장 공방」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소반장 공방」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17년 5월 23일 제4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서 등록 여부를 검토하였고, “무형문화재 위원회와 합동위원회 개최 후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 등록조사 절차 진행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17.4.6 시행)
-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소반장 공방
 - 소 재 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55
 - 소 유 자 : 통영시
 - 수량 및 면적 : 2동, 면적 50m²
 - 건립시기 : 무진년(상량문) * 1868년 또는 1928년
 - 구 조 : 목구조
- (3) 심의내용 : 「통영 소반장 공방」의 문화재 등록가치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조 사 위 원	조사 의견(요약)
○○○ (2017. 5. 12)	·민속건축사적 가치 및 공예사적 의미가 크므로 문화재로 등록 보존 타당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점을 감안 이 유구 외의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해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협의가 필요
○○○ (2017. 5. 12)	·근대기의 가내 공방 주택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로 통영 소반장 공방이라는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등록 가치가 있음 ·현 위치 보존과 이전 보존의 두 방향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소성을 우선한다면 현 위치 보존이 바람직, 계획도로의 선형을 윤이상 기념관 쪽으로 변경하는 안도 고려할 만함
○○○ (2017. 5. 12)	·2대째 통영 소반을 만들어 온 장인의 가옥 겸 수공업장으로서 약간의 역사적, 무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유형의 건축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전통장인의 생활과 작업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희소하므로 철거하여 멸실시키기보다 적절한 장소로 이건, 정비하여 장인의 작업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
○○○ (2017. 5. 16)	·공방과 살림집이 함께 있는 소반장 주택으로 통영 지역 전통공예의 흔적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유적으로 등록 가능함 ·계획된 도로 개설이 소반장 주택을 제외한 양쪽 구간이 완공된 상태에서 현위치 보존보다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과거 목공, 칠 작업, 재료보관 등을 위한 부속공간을 포함하여 본래 규모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2017. 5. 16)	·소반장의 보다 체계적인 작품 활동과 올바른 기능 전수를 위해 안정된 작업 공간이 요구되는 바, 현재의 공방과는 별도의 건물에 목재 건조, 재료 보관, 목공 작업과 칠 작업 공간 등 제작 공정에 따른 작업장과 완성품 전시장소,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마. 통영시 입장

○ 도로 개설에 따라 추용호 소반장 공방을 근처(약 50m)에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 후 원형보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후 추용호 소반장에게 제안 설득하였으나, 소반장의 현 위치 보존 주장으로 더 이상 진척 곤란

※ 건축물 관리대장상 대지면적 50㎡* 외에 불법점유한 화장실 및 창고 등 면적 10.75㎡까지 통영시에서는 모두 인정하여, 이전 예정 대지면적 270.75㎡** 안에 60.75㎡의 장인 거주 대지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계획함

* 장인 거주 대지 50㎡ 안에 살림집 18.2㎡, 공방 10.2㎡ 건립

**이전 대지 270.75㎡ 안에 장인 거주 대지 60.75㎡, 전수교육관 105㎡ 마련

바. 의결사항

○ 보류

- 의결정족수 미달

○ 출석 11명(조건부 가결 5명, 부결 4명, 보류 1명, 기권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통영 소반장 공방 (구) 통영 소반장 공방
2. 용 도 : (현) 공방 및 살림집 (원) 공방 및 살림집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55
4. 소유자 : 통영시장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무진년 (1868년 또는 1928년으로 추정)
- 수량 및 면적 : 2동, 연면적 50㎡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1) 개요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 유구는 안채와 고방으로 이루어져 있음. 외형적인 변화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생활하면서 덧대거나 고친 부분들이 여러 곳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안채는 3칸 우진각 지붕의 건물로 2칸은 방이며 1칸은 부엌임. 방의 출입문은 미서기 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짝 틀에는 소반공예가의 세밀한 조각이 새겨져 있음. 두 방의 앞에 있는 툇마루 양쪽 끝에는 수납공간이 있음. 부엌은 원래 꺼진 바닥에 아궁이가 설치되었는데 생활하면서 바닥을 높였음.

공방은 2개의 보 위에 동자주를 세운 한 칸 규모의 우진각 지붕이다. 대단히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반장이 작업하기 편하도록 내부를 세 구역으로 구획/구성하여 연장 및 도구의 수납, 작업과정에 따른 재료 배열 등이 잘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공방 및 살림집의 보존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절한 보존조치를 통해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 소유주인 소반장 추용호 씨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보존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 소유주인 통영시에서도 본 유구의 보존의지를 보이고 있어 건물의 보존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유구의 영쪽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보존의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반장의 생활과 공방작업을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관 겸 공방으로 활용할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 소유주인 통영시와 전 소유주인 추영호 소반장 사이의 협의여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전통공예 기능보유 무형문화재의 작업, 생산시설 중에 본 유구와 같이 원래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원 용도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장은 드문 것으로 전해짐.

7) 등록가치의견

- 12공방이 해체된 후 종사자들이 흩어지면서 해안가였던 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부락이 형성되고 공방촌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됨. 본 유구의 주변이 이러한 사연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대부분 멸실되었으며 본 유구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게 되었음. 중요한 전통문화의 산실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전문가, 관, 시민사회에서 일찍 깨닫지 못하고 있던 중에 이 유구를 지나는 소방도로가 계획되었고 공사가 이 유구 부지만 빼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 뒤늦게 이 유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보존조치에 나선 때는 소유권 이전의 절차가 진행되고 공공의 도로사업이 한참 진척된 후의 일로 원 소유주가 현지보존을 강력히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은채 머무르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본 유구가 가지고 있는 민속건축사적 가치, 남부지역 살림집의 특성 보유, 살림집과 공방의 관계, 공방 내의 작업공간으로서 실내장치 및 구획, 이에 따른 구법, 대지주변 형상변경에 따른 대문위치 변천 등 건축사적, 공예사적 의미는 크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단,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이 유구 외의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존치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통영 추영호 소반장 살림집 및 공방

<○○○>

1) 개요

- 조사 대상 건축물은 통영소반장 무형문화재 추영호 장인이 소유했던 건물로서, 3칸 살림채와 통칸의 공방채, 그리고 화장실 건물로 이루어진 소규모 공방 주택이라 할 수

있음. 이 공방주택의 입지는 원래 남쪽으로 해안에 면한 바닷가 마을에 속했으며, 일대 마을에는 여러 공방들이 산재하여 가내 수공업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함.

- 현재 남쪽 지역은 매립되어 시가지가 개설되었고, 이 대상지에 바로 면하여 윤이상 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자리 잡고 있음. 주변 마을도 개발되어 소규모 사찰과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서 옛 공방마을의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통영시의 도시 계획상 대상지는 소방도로 개설지에 포함되어, 이 공방주택 좌우로는 이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차선 도로가 건설되어 있고, 이 주택만 길 가운데 남은 모습이 되었음.
- 삼도수군 통제영이 위치했던 통영지방에는 통제영에서 관장하던 이른바 12공방이 있었음. 1.선자방(부채), 2.입자방(갓), 3.총방(말총류), 4.상자방(상자류), 5.화원방(각종 그림), 6.소목방(가구류), 7.야장방(철물), 8.주석방(백동과 놋쇠), 9.은방(금은류), 10.칠방(옷칠) 등이며, 시대에 따라 통개방(화살통), 화자방(신발), 안자방(말안장), 패부방(나전), 주방(가죽), 미선방(등근 부채) 등이 개폐되었음. 추영호 장인의 집안은 이 가운데 소목방의 전통을 이은 가문으로 선대에 이어 통영소반을 제작해 왔음. 통영소반은 나주반, 해주반 등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 소반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
- 1895년, 통제영이 폐영되면서 통영 12공방은 관영 공방의 자격을 잃어 통영 각지에 흩어졌지만, 지역 사회의 수요가 있는 공방과 장인들은 현재까지 그 전통의 맥을 잇고 있음. 예를 들어, 가구를 다루는 소목장이나 나전칠기의 나전장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장인으로 손꼽힘. 추용호 장인은 자기 가문의 공방이 위치한 일대는 12공방이 철폐된 후, 다수의 장인들이 이주하여 일종의 사설 공방마을을 이루었다고 증언함. 통제영 공방에 속했던 장인들이 무리지어 이주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원래는 북쪽 골목 쪽으로 살림채가, 남쪽 바닷가 쪽으로 공방채가 놓이고 두 건물 사이 작은 마당으로 출입문이 있었다고 추정됨. 후대에 남쪽이 매립되어 길이 나면서 현재와 같이 공방을 통해 출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음. 공방과 살림집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근대기의 소규모 가내 공방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성임.
- 3칸 살림채는 두 칸의 온돌방과 한 칸 부엌으로 구성됨. 온돌방 앞에는 작은 툇마루가 설치되고 툇마루 양쪽 끝에 위아래 창호를 단 선반을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했음. 두 방의 출입문은 아자살의 미서기문을 설치했는데,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보임. 변형된 3량가의 구조를 가지고 민도리, 훌쳐마의 소박한 구성임. 원래는 우진각 초가집이었으나 현재는 왜식 개량기와를 엮었다. 안방 종도리에 “戊辰年四月十八日丙子”라는 상량 목서가 남아 있음. 1945년 생인 추정선(추용호 장인의 누이)씨가 이 집에서 출생했기에 무진년이란 1928년 또는 1868년이 됨. 추씨 남매는 자기들의 할머니가 1890년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는 전언을 들어, 이 집의 건립연대를 1868년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재의 상태나 주변 상황들을 고려하면 1928년일 가능성도 높음.

- 남쪽의 작은 공방 역시 원래는 우진각 초가집이었으나, 현재 지붕은 슬레이트를 얹었고, 벽체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했으며, 유리를 단 창호들은 변형되었음. 내부는 통칸의 작은 공방이지만, 지붕틀은 중간에 약 2자 간격으로 한 쌍의 대들보를 지르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짧은 종도리를 얹었음. 우진각 지붕을 만들기 위한 특이한 구조법으로서, 근대기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공방 내부 지붕은 신문지로 도배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8년도 신문도 발견되어, 적어도 그 이전, 살림채와 같은 20세기 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함.

3) 원형보존, 변형과 노후화 상태 및 주변환경

- 원래 두 동의 초가집이었으나 후대에 개량기와와 슬레이트로 변형되었고, 벽체와 창호도 현재와 같이 바뀌었음. 그러나 기둥과 지붕틀의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복원이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변 환경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도시 계획상 철거의 위기에 처해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

4) 등록가치와 보존의 의의

- 이 집은 적어도 1세기에 가까운 통영 소반장 공방이라는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가진 건축물일 뿐 아니라, 그 배치 구성에서 근대기의 가내 공방 주택이라는 매우 희귀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음. 특히 살림채와 공방채가 크기는 서로 다르면서 형태는 유사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과 거주라는 기능을 확연하게 대비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함. 또한 공방채의 특이한 칸살이 역시 희귀한 사례로 기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후대에 변형된 재료와 창호들을 원래대로 복원한다면, 근대 공방 주택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임. 현 위치 보존과 이전 보존의 두 방향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소성을 우선한다면 현 위치 보존이 좀 더 바람직하며, 이 경우 계획도로의 선형을 윤이상 기념관 쪽으로 변경하는 안도 고려할만함.

<○○○>

1) 개요

- 이 가옥은 소유권이 통영시로 이전되기 직전까지 소반장 추용호(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가 거주했으며, 이전에는 그의 부(父)와 가족들이 이곳에서 소반을 만들며 살았다고 함. 조사대상 가옥은 소반을 만들던 소규모 공방(工房)건물과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몸채, 측간 등 3동(블럭조 측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몸채와 공방 사이에 작은 마당이 있으며, 이들 건물에 붙여 콘크리트 블록 담을 축조했으며, 서측 담에 외부에서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판문을 달아 놓았음. 가옥 주위에 인접해 있던 가옥들은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모두 철거되고, 현재 이 집만 남아있음. 이 가옥의 남측 가까이 작곡가 <윤이상 역사공원>이 있으며, 남으로 약 200m 떨어져 넓은 남해바다가 펼쳐져 있음.

몸채 온돌방 천정 속 종도리 밑면에 “戊辰年四月十八日丙子”라고 묵서(墨書)한 상량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28년(무진, 戊辰)에 건축한 것으로 보임. 직전(直前)

소유자 추용호는 이보다 60년 빠른 1868년에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淸)의 연호를 쓰지 않은 상량문 형식과 건축형식, 재목 상태 등으로 보아 1868년에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천장 도배지 안쪽의 초배지 등에 일장점기때 신문지 등이 사용된 것과 상량문서, 건축형식, 사용재료 등을 종합해 볼 때 1928년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1928년에 지은 몸체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간략한 민도리계 우진각집으로, 지붕에는 토제 일식(日式) 평기와를 이었음. 평면은 정면 우측부터 부엌 1칸, 온돌방 2칸이 연결된 형태로 방 앞에는 폭이 좁고 낮은 파손된 툇마루가 놓여있음. 근현대에 집 주위 도로와 지면이 높아지면서 집이 어둡고 배수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마당을 성토하고 바닥을 시멘트 몰탈로 마감했다고 함. 이로 인해 몸체의 전면(前面) 기단이 매몰되어 지금은 초석 윗면만 겨우 드러나 있음.

몸체의 상부가구는 간략한 3량가로, 전후(前後) 기둥 상부에 도리와 가는 대들보를 십자(十字)로 결구하고 도리 위에 가는 연목(D 6-8cm)을 걸어 물매가 완만한 우진각 지붕을 형성했음. 기둥을 비롯 사용된 모든 부재는 일반 민가에 비해서도 가늘며, 특히 정면에 사용된 각주(角柱)의 굵기는 불과 13cm 내외이다. 이 가옥에서 나타나는 낮은 처마와 완만한 지붕은 해안지방 민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가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임.

몸체 온돌방 내부의 천장과 벽은 도배지로 마감했으며, 부엌 안은 연등천장으로 가는 연목 사이에 거칠게 마감한 양토가 드러나 있음. 본래 부엌 바닥도 두세 계단을 내려 가야할 정도로 낮았다고 하나 지금은 돋우어 마당보다 크게 낮지 않음. 부뚜막, 굴뚝 등은 훼손되어 옛 부엌의 모습이 잘 남아 있지 않으며, 부엌은 주로 목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몸체의 온돌방 정면과 수납장(툇마루 끝) 앞에는 추용호 소반장의 부(父)가 제작했다고 하는 여러 종류의 흑색을 칠한 세살창이 달려있음.

몸체 앞쪽(남)의 공방 건물은 근년까지 소반장 추용호가 소반 등을 만들던 소규모 수공업장임.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에 불과하며,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소골슬레이트를 덮어 마감했음. 이 건물에는 콘크리트 블록조 외벽과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벽, 그리고 라왕제 유리창과 유리문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몸체보다 늦은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임. 공방건물은 높이가 낮은 소규모 건물로 전후 중앙기둥의 상부에 대들보를 걸고 그로부터 두 자 정도 띄워 또 다른 들보를 외벽 위에 올린 다음 각각의 들보 위에 낮은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우진각 지붕틀을 형성했음. 공방 바닥에는 구들을 시설했으며, 마당 쪽 아궁이에서 군불을 땔 수 있게 되어 있음.

공방 건물의 들보 위에는 판재를 걸치고 도구나 물건을 올려놓는 수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내 벽에는 못 등을 박고 연장 등을 걸어 놓았음. 연장의

위치 등을 볼 때 작업은 주로 중앙의 대들보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공방의 천장고는 낮으나 재료가 크지 않고 주로 바닥에 앉아 작업하는 소반제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간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공방 등이 침수되어 이때 대폭 수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유로 건축구조와 지붕, 건축형식, 의장면에 특징적인 요소가 잘 남아 있지 않음. 다만 장인이 대로 이어 2대째 이곳에서 전통 소반을 제작했다는 점 그리고 변형되긴 했으나 근대이후 장인의 생활과 생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라는데 약간의 가치가 있음.

3) 원형보존 · 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이 가옥의 몸채와 공방건물은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변형 훼손, 노후된 상태임. 몸채 지붕의 기와, 연목, 기둥, 벽체 등은 노후하여 보존을 위해서는 시급히 수리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지붕에는 토제(土製) 일식 평기와가 사용되었으나 평고대의 형태, 수법 및 처마 중앙부의 연목을 더 길게 돌출시킨 배부른 형태의 연목걸기 수법 등으로 볼 때 당초 초가로 지어 생활하다 후대(後代) 초가지붕을 지금의 일식 평기와 지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임.

- 지붕의 일식 평기와의 상태를 볼 때 덮은 지 반세기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임. 몸채의 경우 지붕의 일식 평기와가 전반적으로 파손 이완된 상태이고, 특히 배면 좌측부는 다른 곳 보다 이완정도가 심각한편임. 온돌방 뒷벽 내측 상부의 도배지 여러 곳에도 누수로 인한 얼룩이 남아있으며, 이것으로 볼 때 수차례 누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몸채 앞쪽(남)의 공방 건물은 구조형식이 몸채와 크게 다름. 1959년에 있었던 사라호 태풍 때 공방(工房) 건물이 1m이상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다는 증언(추용호 소반장) 및 이 건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블록벽, 라왕제 미서기문, 유리창 등을 종합해볼 때 196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수리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라호 태풍(1959)때 피해를 입은 후 지붕과 외벽, 창호 등을 크게 수리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이 가옥은 개설중인 도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장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전(또는 철거)이 불가피함. 직전 소유자 추용호는 이 가옥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장 조사결과 유형의 건축문화재로서 두드러진 특징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무형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도로 개설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 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장소에 보존하는 것은 변화된 주변 여건과 가옥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는 것으로 보임. 지정 문화재도 필요시 보존을 위해

이전하여 보존(보호)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여 소반장의 작업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이는 무형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함)

나.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가옥과 유사한 기등록 문화재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상당히 훼손되긴 했으나 전통공예기술을 2대째(현 보유자 아버지 포함) 전승해온 수공업장이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유형의 건축문화재로서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전통장인의 생활과 작업장이 남아 있는 경우가 희소하므로 철거하여 멸실시키기보다 적절한 장소로 이전, 정비하여 장인의 작업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이 가옥은 1928년 4월(상량 묵서 기준)에 지은 근대기 통영지방 민가의 한편에 장인이 소반을 제작하던 소규모 별동의 공방 건물을 갖춘 사례로 근대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나 근현대기에 대부분 멸실(滅失)되어 잘 남아 있지 않음. 이 가옥은 통영 12공방 중의 하나였던 소반장의 주택 겸 가내 수공업장이었다는 점에 약간의 가치가 있으나 지금은 노후, 훼손 및 변형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많이 상실한 상태임. 몸채는 통영지역 서민들이 살던 평범한 민가(民家)로서 공간구성, 건축형식, 세부수법 등에 뚜렷한 특징이 없으나 소반을 만들던 공방이 부속되어 있다는데 약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공방은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그 후 대폭 수리한 것으로 보이며, 현존 건물은 건축형식을 비롯 사용재료, 세부기법 면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특징이 없음. 다만 2대째 통영의 특징적인 소반을 만들어 온 장인(匠人)의 가옥 겸 수공업장이라는 데 약간의 역사적, 무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유형의 건축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1) 개요

- 국가 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2014년 지정)이 거주하며 작업하였던 소규모 주택으로 살림집과 공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반장의 부친인 소목장 추용동(1912~1973년) 생존 당시부터 살림집과 공방으로 이용함.
- 통영 12공방 등 과거 통영의 전통적 지역 특성이자 현재 주요한 문화유산인 전통공예의 흔적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유적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생활공간인 안채와 공방인 사랑채로 구성된 소반장 주택으로 본래는 주변에 소반장의 목공, 칠 작업, 재료보관 등을 위한 부속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좁은 대지내에서 공방과 살림집 두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임.

- 공방과 살림집 모두 서까래 규모로 보아 본래 초가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공방은 슬레이트 마감의 우진각 지붕, 살림집은 기와마감의 우진각지붕으로 각각 변형된 상태임.
- 공방은 소반장 주택중 가장 특징적인 공간으로 매우 소규모 작업장이지만 두 개의 보와 그 위에 각각 동자주를 세워 독특한 목조 가구(架構)를 형성함.
- 안채는 상량문에 무진년(戊辰年)이라는 기록이 있어 1868년 또는 1928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형적인 3칸 규모의 소규모 살림집을 구성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공방과 살림집 모두 그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치며 건축원형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유지, 관리 소홀로 전체적으로 노후화 및 훼손이 많이 진행된 상태.
- 전체적으로 노후화 및 훼손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기본적 구조체와 공간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건축원형의 복원은 가능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소반장 주택은 통영시에서 개설중인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반장 주택을 제외하고 양측의 나머지 구간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
- 도시계획 도로 한가운데 소반장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의 위치에서 그대로 문화재로 보존, 관리하기에는 제반 여건 및 주변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주거시설로서 등록문화재 사례는 다수가 있으며, 예술가의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결합된 사례로는 서울 누하동 이상범 가옥과 화실(등록문화재 제171호)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현재 통영 소반장 주택은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 구조체와 공간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공방과 살림집이 함께 있는 소반장 주택으로 통영지역 전통공예의 흔적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유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이미 계획된 도로 개설이 대부분 진행되고 소반장 주택을 제외한 양쪽 구간이 완공된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하기 보다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과거 목공, 칠 작업, 재료보관 등을 위한 부속공간을 포함하여 본래 규모의 전체 원형을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 한국 전통 소반은 지역적 특성과 주택양식의 변화, 식생활문화에 따라 기능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소반은 해주반, 나주반, 통영반, 충주반, 강원반 등으로 나뉘며 각기 천판天板, 운각雲却, 목재질, 제작기법에 따라 특색 있는 아름다움과 기능이 고려된 지방 고유의 조형양식을 갖게 되었음. 통영소반은 해주소반, 나주소반과 함께 한국의 3대 소반으로 불림.
- 통영소반의 특징은 천판의 네 귀가 둥글게 굴러져 있으며, 원통형 다리가 천판부터 내려오고 상중대上中帶와 하중대下中帶로써 견고하게 짜여 있음. 천판과 상중대 사이에 끼워진 견고한 구조물인 난간에는 양각된 초문草文이 장식되고 있음. 이러한 통영소반은 타 지방에 비해 매우 견고하고 장식적이어서 현대에 사용하는 소반에도 통영소반의 미적 전통이 반영되고 있음.
- 오늘날 모든 공예산업이 그러하듯 소반도 현대의 주택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는 대형 식탁을 사용하게 되고, 소반 제작의 재료 또한 원목에서 합판의 사용과 함께 기계화로 대량생산되어 보급되면서 전통 소반제작은 경쟁력을 잃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전통 통영소반 제작기술을 보호, 육성하고자 추용호를 중요무형문화재 제 99호 소반장으로 지정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소반 제작기술에 대한 연마는 물론 후계자 양성의 전승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현재의 소반장 추용호의 공방은 숙식과 함께 하는 가옥 구조로서 비좁은 공간이며, 그 또한 노후되어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며, 전동기기의 소음과 먼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1~2인 작업은 가능하나 전수자와 이수장 등 후계자들이 함께 작업하기에는 작업과 교육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소반장 추용호의 보다 체계적인 작품 활동과 올바른 기능 전수를 위해 안정된 작업 공간이 요구되는바 현재의 공방과는 별도의 건물에 목재 건조, 재료 보관, 목공 작업과 칠 작업 공간 등 제작공정에 따른 작업장과 완성품 전시장소,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참고로 유사 종목의 바람직한 전승 활동을 위한 신축 공방으로는 전라북도 나주시에 위치한 중요무형문화재 소반장(나주소반 장인) 공방이 있음.